

‘대로변 명당자리’ 사라지는 주유소

과다경쟁에 경영난...광주 5년째 年 10~20곳 폐업

부지 장점 살린 드라이브스루 매장·카페 등 업종 변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유소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 한때 ‘잘나가는 주유소’였다. 그러나 갈수록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기 위해 ‘셀프주유소’로 전환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업주는 주유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대신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섰다. 대로변에 있어 눈에 잘 띄는데다, 주유소 부지였던 탓에 차량 입·출입도 편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거리제한과 가격고지제로 “문만 열면 돈을 번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주유소 업계가 과도한 경쟁으로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도로변 명당’으로 꼽히는 주유소 부지의 장점을 살려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유소의 휴·폐업 사례는 ▲2013년 11곳 ▲2014년 23곳 ▲2015년 24곳 ▲2016년 10곳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주유소 업계는 지

난 1995년 거리 제한이 사라지고 1997년 유가 자율화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건비까지 상승하자 경영난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유소가 늘면서 해당 부지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유소 부지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처음부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덕분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각광받는 분위기다. 또 ‘광고효과’를 노린 임대업이나 가전제품매장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실제, 광주시 남구 방림동과 주월동의 한 주유소도 폐업한 뒤 각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들어선 상태다. 상무지구와 한 주유소도 커피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지난 7월에는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알뜰주유소는 폐업 이후 가전제품 전문매장이 신규 오픈했다. ‘땀값’ 비싸기로 소문난 서구 상무지구 일대 주유소 3곳 자리에는 신규 상가건물이 들어섰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무지구 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주유소.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들이 건물 일부를 임대로 내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

우 임대료가 평당 1000만~2000만원을 호가한다”며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건물을 짓고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당수 주유소들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의 규모를 줄이고, 그 일부를 편의점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를 철거 비용이 1억원 이상이다.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돼 있어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활용하면 철거비용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절감될 것”이라며 “주유소 업계가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도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80.40 (-8.31)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 ↓ 코스닥 642.04 (-6.91) ↓ 환율 (USD) 1131.80원 (-4.70)

효성 “지배구조 개선·주주권익 보호”

투명경영위 설치...경영사항·자사주 매입 등 심의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효성이 투명 경영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내부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조현준 회장이 지난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시장과의 소통확대 등 주주지치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는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정성명 사외이사가 맡는다.

주주권익 보호와 관련한 분할과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이사회 상정 전에 심의한다.

이를 통해 효성그룹 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효성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존에 조 회장이 맡아왔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도 환경부장관 출신인 김명자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추천받아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효성은 밝혔다.

효성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회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정보를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회계 임직원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 교육도 할 예정이다.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주)효성을 사외이사와 지주사(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5~10월16일

중기중앙회는 오는 10월 16일까지 2017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2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에 6567명, 제3차(7월)에 9100명을 배정했으며, 올해 마지막 접수인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접수돼 있어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이트진로, 광주 사랑기금 3300만원 기탁

하이트진로(주)는 25일 광주시 행정부시장실에서 광주지역 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11차 조성금 3347만3620원에 대한 기탁식을 가졌다. 기금 전달식에는 박병호 행정부시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호남권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사랑기금은 하이트진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

을 위해 펼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d맥주 판매 병당 2원씩 적립하는 형태로 모금하고 있다. 현재까지 11차 조성금을 포함한 누적 기탁금은 2억7000만원으로 이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2억원을 기 전달한 바 있다.

조성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두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 생계비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등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광주사랑기금 조성사업 이외에도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 환경지킴이 봉사 활동, 아름다운 바자회 행사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직원 92% “김영란법 청렴성 향상”

설문 등 한 달간 청렴활동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 활동으로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 후 의식·행동변화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신고서 작성훈련, 법 위반 사례(권익위 제공) 인트라넷 팝업게시 등을 실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및 전 직원 법 준수 서약 등 다각적인 활동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한전 직원 응답자(8976명, 총 2만1082명)의 91.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7.5%가 회사 업무처리 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협력회사 종사자 응답자(2229명)의 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85.3%가 법 시행 이후 의식 및 행동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Dutch Pay)의 일상화 및 각종 업무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를 매일 한 가지씩 일주일 간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을 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환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청렴이 한전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